

# 산재 승인의 80%를 결정하는 단 하나의 서류

사고 경위서, 완벽 작성 가이드





# 심사관은 그곳에 없었습니다

공단 직원은 사고 현장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.

그들의 유일한 정보원은 당신이 제출하는 이 서류 한 장입니다.

우리의 목표는 심사관이 당신의 눈을 통해 그날의 상황을 생생하게 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.



**“공단 직원이 내 옆에 있었던 것처럼, 그날의 상황을 글로 보여주는 서류”**



## ★ STEP 1. 작성 전, 반드시 지켜야 할 단 하나의 황금률



초진차트



사고경위서

당신의 진술은 반드시 병원 **‘초진차트(의무기록사본)’**  
기록과 **100% 일치**해야 합니다.

심사관은 두 서류를 가장 먼저 비교합니다.  
내용이 다르면 당신의 진술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.



# 만약 초진기록과 내용이 다르다면?

해법은 정직하고 명확한 해명입니다.

경위서에 불일치에 대한 이유를 직접 명시해야 합니다. 아래 두 표현을 활용하세요.

**상황:** 사고 직후 너무 놀라고 정신이 없어서 의사에게 잘못 말했을 때

**표현:** "사고 당시 경황이 없어 의사에게 내용을 잘못 전달했습니다."

**상황:** 동료가 대신 병원 접수를 해주며 상황을 잘못 전달했을 때

**표현:** "동료가 대신 접수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잘못 전달되었습니다."



# STEP 2. 승인받는 경위서의 3가지 공식

성공적인 사고 경위서는 아래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포함합니다.  
이 공식만 기억하면 절반은 성공입니다.





# ① 숫자로 신뢰를 구축하세요

추상적인 표현은 주관적으로 보입니다.

무게, 높이, 횟수, 시간 등 구체적인 숫자를 사용해 사실을 전달하세요.

## × 나쁜 예 (X)



무거운 물건



높은 곳에서



자주 반복함



## 좋은 예 (◎)



**20kg** 시멘트 포대



**2m** 높이의 사다리에서



하루 **500회** 이상 반복



## ② 동작을 눈에 보이게 그리세요

‘들었다’, ‘넘어졌다’ 같은 단순한 서술을 넘어, 심사관이 머릿속으로 당신의 자세와 상황을 그릴 수 있도록 묘사해야 합니다.

### Before (X)

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다.



### After (O)

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펴지 않은 불안정한 자세에서 급격히 물건을 들어 올리다가...



### Before (X)

바닥에서 넘어졌다.



### After (O)

바닥에 흘러나온 기름을 밟고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짚음.







### ③ '업무 중'이었음을 명확히 하세요

부상이 개인적인 활동이 아닌, 회사의 지시나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발생했음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.

심사관은 '업무수행성'과 '업무기인성'을 확인합니다.  
아래와 같은 표현으로 이를 증명하세요.



"작업 반장의 지시로 ~를 수행하던 중..."

"오후 생산 물량을 맞추기 위해  
급하게 이동하던 중..."



# 실전 예시 1: 사고로 인한 부상

**[X]** 일하다가 물건 들고 허리 다침.

**[O]** 2024년 2월 1일 14시경, B공장 자재 창고에서 **작업 반장의 지시로 20kg짜리 박스를 선반(높이 1.5m) 위로 적재**하고 있었습니다. **까치발을 들고 박스를 밀어 넣는 순간**, 허리에서 '뚝' 하는 소리와 함께 전기가 통하는 듯한 통증을 느껴 자리에 주저앉았고, 동료 김철수가 부축하여 119를 불렀습니다.

■ 숫자   ■ 동작   ■ 업무 관련성



# 실전 예시 2: 반복 작업으로 인한 질병 (근골격계)

**[X]** "오래 일해서 어깨가 아픔."

**[O]** 지난 **10년간**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근무했습니다. 하루 **8시간 동안** 임팩트 건(무게 3kg)을 한 손으로 들고, **어깨를 머리 위로 올린 자세를** 유지하며 볼트를 조이는 작업을 분당 5회 이상 반복했습니다. 이는 회사의 생산 계획에 따른 저의 고유 업무였습니다. 6개월 전부터 통증이 심해졌으나 최근에는 팔이 올라가지 않습니다.

■ 숫자 ■ 동작 ■ 업무 관련성



# Q. 목격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?

괜찮습니다. 당신의 디지털 기록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. CCTV나 목격자가 없더라도, 사고 발생 직후의 객관적인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세요.



☒ **119 신고 기록: 가장 강력한 객관적 증거**입니다.



☒ 사고 직후 **동료/가족과의 통화 기록: 통화 시간**으로 사고 시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.



☒ **"다쳤다"**고 보낸 카카오톡/문자 메시지:  
**메시지 내용과 전송 시간을 캡처**하여 제출하세요.



# 막막할 때,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



## Resource 1: Use a Template

정해진 법정 양식은 없지만,  
표준 양식을 활용하면 필수 항목을 놓치지 않고  
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.

[표준 사고경위서 양식 다운로드]



## Resource 2: Get an Expert Review

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 초안을 작성해서  
**병원 원무과의 산재 담당자**에게 보여주세요.  
그들은 수많은 사례를 다뤄본 전문가이므로,  
당신에게 의학적/행정적으로 유리한 표현으로  
다듬어 줄 것입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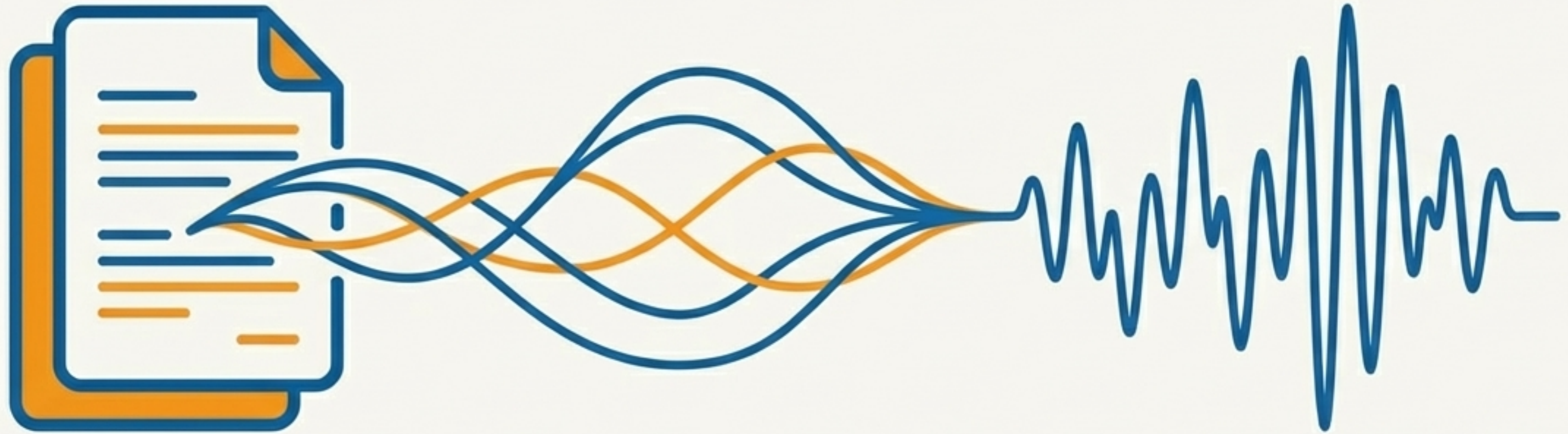
# 제출 전, 최종 체크리스트

이 다섯 가지 질문에 모두 '예'라고 답할 수 있다면, 당신은 최고의 경위서를 완성한 것입니다.

- ☐ **초진차트**와 내용이 100% **일치**하는가? (다를 경우, 해명했는가?)
- ☐ **숫자** (무게, 높이, 횟수, 기간)를 사용했는가?
- ☐ 제3자가 상상할 수 있을 만큼 **구체적인 동작**을 묘사했는가?
- ☐ **업무 지시나 목적**을 명시하여 업무 관련성을 입증했는가?
- ☐ (목격자 부재 시) **통화/문자 기록** 등 간접 증거를 준비했는가?



# 당신의 이야기는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



이 경우서는 단순히 사고를 설명하는 서류가 아닙니다. 그날의 진실을 증언하는 당신의 목소리이자, 심사관이 보지 못한 현장을 보여주는 유일한 창입니다.

**정확하고, 구체적이고, 자신감 있게** 작성하십시오.



#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십시오

이 가이드가 당신의 가장 든든한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
